

Franciscan Collaboration and Inclusion

프란치스코회 앞으로의 전망과 협조

Carolyn D. Townes, OFS, National JPIC Animator (JPIC= 정의 평화 창조의 구현)

“만약 당신이 믿는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창조의 질서도 없고, 정의도 없고, 평화도 있을수 없습니다”

십자가 상의 수난전에,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가 하나인 것 처럼 우리모두가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한마음 한뜻. 매주 일요일 우리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된 사도인 교회, 즉 사도신경을 믿는다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들 생애의 한 부분은 우리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는 프란치스코회에 소속되어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다른 여러가지 우리가 해야하는 일들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사도 바오로가 상기시킨 것 처럼 우리는 한 몸체를 가지고있습니다. 하나의 몸은 우리모두가 한 몸이되어 좋은일을하고 하나의 교회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것을 의미합니다. 프란치스코인들이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의 프란치스코 사명대로 좋은이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합니다.

NaFra 행사가 있는 동안, 나는 국제 소속 프란치스코인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유엔과 함께 일하며 이 세상에서 가장 취약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권 침해를 다루는 비정부 요원들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가치에 영감을 받아, FI 는 희망을 가지고 더욱더 공정한 법률체제와 생활조건의 향상에 관해서 유엔의 결정권 행사자들에게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미국내의 재속프란치스코 회원은 거의 13000 명에 이르는데, FI 의 옹호책임자 아만다 리용에 대한 나의 질문은 더 정의로운 세상을 구축하기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협동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그 대화의 결과로, “와서 나누자” 의 프로그램이 뉴욕시의 St. Francis of Assisi 교회에서 하게되었고 St. Francis 의 Migration Center 가 공동으로 후원했습니다. 또한 대표 참석자로는 Franciscan Action Network, Franciscan sisters, 프란치스코 수사들과 재속회원들; 그중에는 2015 년도 JPIC 수상자인 Sr. Caritas Barajingitwa 도 포함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배우면서 우리가 협조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함께 일했습니다.

내가 프란치스코인들에 대해 확실하게 말 할수 있는것은 우리 모두는 마틴루터 킹 주니어가 말한 사랑하는 사회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 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의를 바로잡고 부정을 개선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자비와 세계 평화를 원합니다. 거기엔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곧 누군가에게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닥치게 될때 프란치스코 회원은 그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며 도움의 손길을 주어야 한다는 뜻 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것은 도움이 필요할때, 그곳엔 프란치스코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최근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불의를 바로잡는일에 더욱더 협력하기위하여 Franciscan Action Network 이사회 회의에 갔었습니다. 회의는 추기경 Theodore McCarrick Award 를 위한 환영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의 수상자는 GreenFaith 의 Rev. Fletcher Harper 와 OurVoices 캠페인 이었습니다. 보다더 정의로운 세상을 구축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프란치스코 수사들, 자매들과 프란치스코적 마음을 지닌 사람들로 채워진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은 매우 겸손된 일이었습니다. 나는 부당한것을 강요하고 불의를 볼수있는 안목을 가진 프란치스코인들의 사랑과 그들의 헌신적인 면모에 매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열정적인 프란치스코 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The Franciscan Action Network 이사회는 4 개의 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에니메이션, 관리, 통신 및 개발부.

우리 모두에게 대한 나의 도전은: 사랑받는 사회를 위한 일한다는 것은 바로 프란치스코 가족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수있는한 당신의 형제자매들에게 격려와 감명을 주고 그리고 영적으로 도움을 주십시오 -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상처와 고통안에서 말없이 힘들어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도전이며 모든 프란치스코 가족의 선을 위해 일해야하는 우리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프란치스코회의 전망과 협조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할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다른사람보다 더 월등하다거나 특별한 사람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며 어떤일을 해야

하는것이 복음적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힘들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프란치스칸이나 혹은 프란치스칸 단체가 사랑실천을 하지 않거나 혹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 부딘치게 된다면 그들을 비방하지 말고 대신 **몇가지 질문을 하십시오.**

나는 교회와 재속 프란치스코회를 위해서 최상의 것을 바라는 우리 모두는 멋지고 착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와 재속프란치스코회를 위하여 사랑받는 사회를 건설하도록 돕는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일이며, 우리의 회칙이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듯이 모든이 안에 존재해 계시는 하느님을 증거하기위한 증인이 되도록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안에서 하느님 존재를 증거하였듯이 당신안에서도 같은 하느님의 존재를 들어내 보이도록 하십시오.